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107~13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金 鐵 柱 · 高 柄 哲

(강남대학교)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을 탐색하여 종교교육 관련 쟁점들(points of issue)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시기별로 각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을 성찰하면서 현행 종교교육론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현행 종교교육론의 쟁점을 종교교육론의 역사 속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은 앞으로 진행될 종교교육과 종교교육론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방향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2장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론이 규정된 방식들을 검토하였다. 3장 종교교육론의 갈등 요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을 둘러싸고 발생된 갈등을 살펴보았으며, 실제로 종교' 과목을 선택한 학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방향'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교교육론의 역사와 연관지어 쟁점화 시키면서 앞으로 진행될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숙고하였다.

핵심 주제어: 7차 교육과정,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정체성, 종교교육과 도덕교육, 근대국가의 교육과정

* 본 연구는 2002년도 강남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들어가면서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1945.9-55.7)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까지 포함하여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¹⁾ 이 과정에서 특히 1960년부터 후반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종교교육 분야였다. 종교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방침과 특정한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려는 종단학교의 입장이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종단학교측은 교육부의 종교교육 관련 방침이 수정되지 않을 때 학교까지 폐교할 수 있다는 자체 폐교설까지 내세울 정도이다.

교육부는 종교편향 교육과 관련하여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처럼 현행 교육과정의 종교교육과 어긋나는 종단학교들을 제재하기도 한다.²⁾ 하지만 동시에 종단학교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 소속된 약 280개의 중등학교,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에 소속된 약 65개의 중등학교, 불교교육연합회에 소속된 22개의 중등학교, 원불교에 소속된 11개의 중등학교, 천도교에 소속된 1개의 중등학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사학에서 종단학교들의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³⁾ 따라서 만약의 경우 종단학교들이 폐교된다면 한국의 교육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육과정 내에서 어느 정도 종단학교들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관련 방침에 대해 종단학교들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중등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계의 발

1) 중등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①제1차: 문교부령 제35호(1954.4.20.제정 공포), 문교부령 제45호/제46호(1955.8.1), ②제2차: 문교부령 제120호/제121호(1963.2.15.), ③제3차: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제350호(1974.12.31.), ④제4차: 문교부고시 제442호(1981.12.31.), ⑤제5차: 문교부고시 제87-7호(1987.3.31.), 제88-7호(1988.3.31.), ⑥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2-11호(1992.6.30.), 제1992-19호(1992.10.30.), ⑦제7차: 교육부고시 제1997-15호(1997.12.30.)

2) <종교편향' 6개 사립교 경고>, 《현대불교》, 2000년 12월 13일 298호.

3) 중등학교 통계는 가톨릭의 경우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홈페이지(www.cbck.or.kr)를, 불교의 경우 2002년 9월 4일 《디지털법보》를, 천도교와 원불교의 경우 각각 《종교교육학연구》13권 139쪽과 166-7쪽을 참조. 심지어 2001년 종교단체에서 세운 사립유치원의 수(678개)가 전체 사립유치원의 수(6993개)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교육 분야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영역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유치원 수치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내 교육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것임.)

언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심지어 개신교계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이를 선거운동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여전히 교육부의 종교교육 방침이 종단학교측의 입장과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단학교에서 현행 종교교육 방침에 대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종교교육 관련 현상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종교교육이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단학교측의 문제 제기에도 대한 분석보다 먼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개편된 현행 교육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으로서 그 기본 방향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 과정,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다.⁴⁾ 이 기본 방향은 다시 목표, 내용, 운영, 제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그리고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세분화된다.⁵⁾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으로는 ①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②고등 학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③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④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⑤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⑥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그리고 ⑦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⁶⁾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6차 교육과정과의 변별성을 염두에 두고 그 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⁷⁾ ①기존의 12년 교육기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년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2년으로 구분되고, 교육과정 체제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12학년제로 구성된다. ②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년은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으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2년은 교과·특별활동으로 편성된다. ③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이수 교과목은 국·영·수를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제6차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지만, 교과별 주당 총 수업 시간수가 전 학년에 걸쳐 1~2시간씩 감축 조정된다. 연간 수업 시간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은 신설된 재량활동의 시간수와 증가된 특별활동의 시간수 때문이다. ④이수 교과목의 수는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4)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1), 서울: 교육부, 1999, 78쪽.

5)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1999, 16쪽.

6)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1), 서울: 교육부, 1999, 78쪽.

7)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1999, 28-41쪽.

초등학교 1·2학년은 5교과, 3·4학년은 9교과, 5·6학년은 10교과, 중학교 1·2·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0교과로 축소된다. ⑤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이 신설되었고, 이는 다시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에는 6차 교육과정에서 편제되었던 선택교과가 포함된다. ⑥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보통교과는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편제 가운데 강조되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권 도입이다.⁸⁾

무엇보다 제7차 교육과정을 이전의 교육과정과 변별시키는 지점은 특히 새롭게 도입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필수)과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종교교육 방침과 관련지어 볼 때 문제는 종단학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전적으로 학생중심의 종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학교측에서는 여전히 학교측의 설립취지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과 이에 대한 종단학교측의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재검토해볼 필요성을 던져준다.

이 글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 관련 쟁점들(points of issue)을 실제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찾아내고, 시대별로 종교교육론을 점검하여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려는 것이다.⁹⁾ 이는 현행 종교교육론의 쟁점을 종교교육론의 역사 속에서 재구성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방향성을 제기하는 작업이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2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론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을 둘러싸고 발생된 갈등을 실제로 '종교' 과목을 선택한 학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교교육론의 역사와 연관지어 쟁점화 시키고, 종교교육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숙고할 것이다.

8) <고교 2·3학년, 수준따라 교과 선택>,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테일리뉴스 No.684.

9) 불교 측은 주로 교과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글의 대상은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을 겨냥한 기독교 계통의 종단학교에 한정하고자 한다.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불교계의 입장 표명은 다음 기사를 참조. <교과서 불교 왜곡 39건>, 《디지털법보》, 2000년 11월 8일자., <교과서 연구 상설기구 설치될>, 《디지털법보》, 2002년 2월 6일자., <교과서 연구위' 상설해야>, 《디지털법보》, 2002년 9월 18일자., <불교교과서 개편 마무리 단계>, 《현대불교》 2001년 6월 27일자 등.

II.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종교교육의 목표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종교 과목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종교교육의 교수·학습, 평가에는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요청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이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항목들은 각각 현행 종교교육론의 분석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의 위치는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처럼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등과 더불어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에 편제된 교양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종교 과목이 교양과목의 영역에 위치해있다는 것은 종교교육이 온전한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교양과목으로서 《종교》의 성격은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실존적인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으로 규정된다.¹¹⁾ 이러한 규정은 한국 사회의 종교 상황을 다종교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한편, 민족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하고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이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일반의 이해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교육은 3가지의 총괄 목표와 6가지의 세부 목표로 설정된다.¹³⁾ 총괄 목표는 건전한 종교관 정립, 성숙한 신앙심 확충, 종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 육성'이다. 건전한 종교관 정립은 종교에 대한 지식 습득을 의미하고, 성숙한 신앙심 확충은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의 극복,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태도 육성은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목표로는 (1) 궁극적인 가치

1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24-8쪽.

11) 위의 책, 124쪽.

12) 같은 책.

13) 위의 책, 129-130쪽.

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 인격을 기르고, 교리와 신화, 종교 의례, 종교 공동체의 특성을 토대로 종교가 실존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2)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난다. (3) 개인의 자아 성숙과 건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이해한다. (4) 한국 종교사의 이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전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여 온전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한다. (5)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기준과 사회적 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6) 각 종단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그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 신앙심을 키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의 내용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¹⁴⁾ 7개 항목은 (1) 인간과 종교, (2) 종교 경험의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4) 세계 종교와 문화,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6) 한국 종교와 문화, (7) 종교 공동체,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등이다. 이 가운데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7) 종교 공동체'의 3개 항목은 제6차 교육과정의 종교 항목에 첨가된 것으로 종교 과목의 내용을 영역별로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다.¹⁵⁾ 이러한 항목들은 제6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이 좀더 보편적인 종교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종교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가 제시된다.¹⁶⁾ (1) 교과서에 제시한 주제와 예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식 수업을 전개하되,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생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종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종교적 가치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학생들이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발표하되,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여 화합을 깨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다종교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기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5) 여러 종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별 종교 단체에서 제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토론 학습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도록 유의한다. (6) 수업하기 전에 발문과 수시 평가 내용 및 과제물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과 평가를 연

14) 위의 책, 130-47쪽.

15)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의 내용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의 내용 항목인 (5) 현대 사회와 종교는 들어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종교》 교과서의 집필 항목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집필 항목은 상호 일치되지 않는다.

16)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47-8쪽.

제시하고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 방법은 5가지로 제시된다.¹⁷⁾ (1)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논술식을 활용하되, 토론과 발표된 의견의 내용 및 태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2) 종교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희생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실천하고, 자기 성화와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한 점도 평가한다. (3) 관찰과 면접, 논술과 과제물 검사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생활 태도나 참여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 지필 검사 이외에도 자료 수집과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과 토론 및 발표 능력 등을 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한다. (5) 감성 지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의적인 내용의 평가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도록 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을 비교해보면 아래에 제시된 <표1>과 같다.¹⁸⁾

< 표1 >

구분	제6차 교육 과정	제7차 교육 과정	비고
교육 과정의 구성	- 교육 과정을 최초로 구성 [구성 체제] 1. 목표 2. 내용 3. 유의점	- 교육 과정 구성의 체계화 [구성 체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화
성격	(공식적 제시 없음)	-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 이해 -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한 건전한 종교관 정립을 위한 과목	종교 과목의 성격 명시
목표	- 총괄 목표 -종교에 대한 지식과 보편적 이론 이해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극복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 총괄 목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타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생활 태도 함양 - 하위 목표: 6개 항목	- 학생 중심의 목표 진술 - 구체적인 하위 목표 제시

17) 위의 책, 148쪽.

18) 위의 책, 149쪽. (신·구 교육 과정 비교)

내용	- 영역별 내용 (1)인간과 종교 (2)세계 문화와 종교 (3)한국 문화와 종교 (4)종교 경험의 이해 (5)현대 사회와 종교 (6)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내용 체계 - 영역별 내용 (1) 인간과 종교 (2) 종교 경험의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4) 세계 종교와 문화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6) 한국 종교와 문화 (7) <u>종교 공동체</u>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내용 영역의 구체화 - 보편적 종교교육 내용 강화
교수·학습 방법	(공식적 제시 없음)	6개 항목	종교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적용
평가	(공식적 제시 없음)	5개 항목	다양한 평가방법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을 살펴보면 좀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눈에 띈다. 예컨대, 종교교육이 교양교육인가(위치의 문제), 종교교육의 성격이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성격의 문제), 종교간의 만남과 대화는 민족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전제의 문제), 종교교육의 목표가 성숙한 신앙심의 확충·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종교적 인격' 등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등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주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2)와 (4)와 (6)의 항목을 과연 방법(method)'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두 토론식 수업 방식인 (1)과 (3)의 항목을 구분할 만한 변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종교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 토론식 수업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에 국한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결국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 자체에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종교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이 이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종교교육의 성격과 총괄목표에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 습득과 보편적 이론의 이해를 통한 건전한 종교관 성립'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 목표에서는 각 종단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해당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 신앙심을 키우고'

라는 내용이,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이라는 항목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가 종단학교의 주장을 고려하면서도 특정 종파 교육의 폐쇄성을 벗어나도록 의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상호 이질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부 목표 가운데 '종교적 인격'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언급된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도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종교 과목의 명칭에 대한 성찰도 요구된다. 종교교육이 공교육의 장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과목 명칭은 '종교'라는 애매한 명칭보다 오히려 '종교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과목 명칭은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드는데 협력할 따름이다.

현행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이 갖는 모호성은 종단학교들과의 충돌을 배제하려는 교육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종교교육의 성격을 특정 종파 교육과 일반 종교교육이 결합된 것으로 규정하였고, 결국 종교교육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종교교육을 사립학교 일반이 아니라 종단학교에만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종교교육의 모호한 성격 규정, 종단학교에만 국한되는 종교교육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이 특정 종파 교육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종교교육이 필요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은 그 모호성 때문에 종단학교 측에서조차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후술하겠지만, 결국 이러한 각종 논란거리와 부정적인 인식 창출은 종교교육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근대적 학문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Ⅲ. 종교교육론의 갈등 요인

한국 사회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종단학교를 설립한 종교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에 소속된 교육부 교과과정 시행대책위원회¹⁹⁾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 내용 가운데 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 부분에 종교과목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²⁰⁾ 중학교 전과정과 고등학

19)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가장 많은 기독교사학을 보유하고 있는 예장통합은 1999년 제84차 총회에서 총회 제7차 교육부(정부) 교과과정 시정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 모임은 2000년 2월 29일 첫 모임을 갖고 종교교과의 복수 선택 과목 환원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20) <예장통합 성경 교장 재량 과목 바람직>, 《국민일보》, 1999년 12월 30일자.

교 1학년 과정에서 주당 1시간으로 편성된 재량 활동시간에 종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예장통합 산하 교목전국연합회는 2000년 1월 22일 총회에서 제7차 교육과정 수정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량 활동시간에 종교과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과 고등학교에서 복수 선택으로 되어 있는 종교과목을 단일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²¹⁾

종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등의 교단들도 예장통합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2000년 초에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²²⁾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중학교의 경우 재량활동시간이 신설되면서 중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이 제외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기당 이수과목이 10과목으로 제한되어 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종교과목을 정규교과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8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가입된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이 문제를 기독교사학의 존폐를 건 투쟁으로 부각시켰고, 기감의 경우도 2000년 1월 31일 교육부에 속한 학원선교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이 종교교육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²³⁾ 그 내용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씩 편성된 재량학습시간에 종교교과를 가르치도록 명시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학교 특성에 따라 종교과목을 단일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다.²⁴⁾ 이 결의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성경교과 시간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기독교학교 전국교목협의회도 예장통합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학교의 경우 재량활동시간이 신설되었지만 재량과목에 종교과목이 명시되지 않아서 종교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은 이수 과목수를 10과목으로 제한함으로써 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종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였다.²⁵⁾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는 종단학교들의 반발에 대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성경과목이 정규과목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오히려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21) <종교과목 지나친 홀대 성경교육 뿌리 흔들어>, 《기독신문》, 2000년 3월 15일자.

22) <교계, 정부의 7차 교육과정 개정 절대 반대...재개정 요구>, 《국민일보》, 2000년 2월 2일자.

23) <종교과목 지나친 홀대 성경교육 뿌리 흔들어>, 《기독신문》, 2000년 3월 15일자. 이 협의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53개 기독교학교의 교목실장들이 연합하여 2000년에 창립된 것으로, 출발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24) 《국민일보》, 2000년 3월 7일자.

25) 《국민일보》, 2000년 2월 15일자.

재량권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교과목을 교양선택 가운데 하나로 지정·운영하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하게 한다는 방침은 1984년에 시행된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되어온 것임을 밝혔다.²⁶⁾ 중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과재량활동의 기타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편성(주당 1-3시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군다나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주당 1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특성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종교 과목은 교과재량활동 가운데 선택과목에 배정된 4-6단위 중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창의적 재량활동시간(2시간)에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 종교활동이 가능해졌으며, 2·3학년의 경우 선택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학교가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종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은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방침이 기존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교교육에 관한 학교의 재량권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종교 과목은 없지만 교과목 신설 승인 절차를 밟아 선택 과목의 기타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종교교육과정이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종교과목을 재량활동의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기존의 4단위보다 더 많은 이수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⁷⁾ 종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아래의 <표2>와 같다.²⁸⁾

26) 《교육소식》, 제26호, 2000년 4월 6일.

27) <종교 과목을 재량 활동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이수시킬 수 있는가?>, 전라북도교육정보 과학원 홈페이지(<http://home.cein.or.kr/%7Eedu7th/>).

28) <중·고등학교 종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교육소식》, 제26호, 2000년 4월 6일.

< 표2 >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제6차 교육과정	●선택교과 중 기타 과목으로 종교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간 34-68시간 이수 가능 ※학교가 한문, 컴퓨터, 환경 이외에 기타 필요한 교과를 선택 교과로 설정,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양선택 중 종교과목 개설(4단위) ●3년간 4단위(68시간) 이수 가능 ※교양선택에서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7차 교육과정	●교과재량활동의 기타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간 34-102시간 이수 가능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1학년의 경우 - 교과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에 배정할 수 있는 4-6단위를 종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음 ●2,3학년의 경우 - 선택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학교가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음 - 사학의 경우,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가능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창의적 재량활동에서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음 (중학교: 주당1시간, 고등학교: 2단위)
관련 법률	헌법 제20조 ①항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6조 ②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부의 입장 표명 이후,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성경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신설된 재량활동 시간의 편성·운영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고, 종교교육이 제6차 교육과정 때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²⁹⁾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종교 과목 개설시 종교 이외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정한 지침'의 이면에 새롭게 맞추어졌다. 비판의 논리는 종교 과목을 복수 과목으로 개설토록 한 것이 기독교 학교의 특성과 건학 이념을 무시한 발상으로 승복할 수 없으

29) 홍영일, <기독교학교교육에서 바라본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 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1쪽. (한국기독교학교연맹: <http://www.kfcs.or.kr>)

며, 기독교 학교의 특성상 종교 교과는 필수교과 중에서도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하지만 동시에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교육부와 마찰을 피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감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³¹⁾

(1) 종교'과목이 필수 과목이 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성경을 가르치면서 종전처럼 당국과 장학사를 설득해 나간다. (2)기독교 사학의 설립이념에 의해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학교준립과 관계되므로, 한기총 등 기독교 유관기관, 각 교단 총회장의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부탁하는 내용의 공문 제시) (3)10과목 이내는 가능한'이란 단서가 붙었음에 주목한다. (4)성경을 한 시간 더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

기독교 내의 다른 종단학교들도 교육부의 방침이 종단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 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동조하였다. 기성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은 기독교사학의 건립취지와 교육특성을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성경과목수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으며 교목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고된다는 위기감을 내비쳤다.³²⁾ 또한 기성 내의 교목단도 2001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갖고 제7차 교육과정으로 종교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비쳤으며,³³⁾ 이러한 위기감 조성은 2002년에도 전반적으로 지속되었다.³⁴⁾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16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종교교육 정책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보낸 공개질의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³⁵⁾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①중학교 교과과정에 종교과목을 명시해 줄 것, ②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과목을 현행 복수 선택과목에서 단일 선택과목으로 변경할 것, ③종교과목의 이수단위를 기존의 4단위에서 6단위로 늘릴 것'³⁶⁾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부의 방침이 종단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변경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30) 위의 글, 5쪽.

31) 위의 글, 4쪽.

32) <교단 지원 늘려 학원선교 활성화 필요>, 《한국성결신문》 284호, 2000년 6월 17일자., <기독교학교서 성경과목수업 사실상 중단>, 《한국성결신문》 354호, 2001년 1월 12일자.

33) <신앙안에서 꿈을 이루자 - 교목단 수련회>, 《한국성결신문》 336호, 2001년 8월 25일자.

34) 《活泉》, 2002년 4월호. (인후동교회 인터넷 월간지: <http://livingwaterskehc.org>)

35) 《국민일보》, 2002년 11월 12일자. 예성에 속한 총회 교육부 산하 제7차 교과과정 시정대책위원회에서도 공개질의서에 동참하였다.

36) 이수단위 상향 조정은 종교과목의 이수단위가 4단위(2+2)로 1-2학년까지만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단위로 늘려 3년 동안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는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었다.

재량활동시간에 종교교육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것과 복수 선택의 종교과목을 단일 선택과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교육부의 입장 표명 이후, 종단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 특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변환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보다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종교교육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속에서의 종교교육사를 통해 종교교육의 위치와 성격 규정을 성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종교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은 결국 종교교육의 위치와 성격 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IV.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방향

종교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한 것은 제2차 교육과정과 제3차 교육과정 시기였으며, 그 원인으로 제3차 교육과정 중에 실시된 1967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제4차 교육과정 중에 실시된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에 의한 학군제와 1980년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제 등이 제기되었다.³⁷⁾ 무시험 추천제 이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단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황과 특정 종파 교육을 실시하려는 종단학교의 상황이 충돌하면서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교육 당국은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특별활동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사학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단학교에서 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모든 학생들에게 특정 종파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에서 종교 과목이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과 함께 자유선택과목으로 명시되었고, 교과서도 인정도서로 승인되면서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시도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에 종교학계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985년에 윤이흠, 정진홍은 한국종교학회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각각 종교교육에 관련된 글들을 발표하면서 깊은 인간 이해를 위해' 공교육에서 종교문화교육인 종교학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³⁸⁾ 윤

37) 정진홍,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6쪽.

38) 두 글을 참조: 윤이흠, <종교 다원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중,고교 도덕교육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종교

이름은 다종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들의 제국주의적 문화횡포나 독단적 신앙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종단교육보다 종교문화교육, 즉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교육인 종교학이 보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내용은 결국 '생숙한 인간의 양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진홍은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종교가 인식의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초·중·고교 도덕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하여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의도는 인간에 대한 이해, 생숙한 인간에의 지향,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점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초기 종교교육의 논점은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에 맞추어져 있었다.

제도적으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도 지속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도되었다. 각 종단에서 편찬한 종교 교과서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하였고, 무자격의 교사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1990년에 서울대학교에 종교 교사 연구 과정을 개설하여 90여 명의 교사들에게 종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다.³⁹⁾ 또한 자유선택 교과라는 명칭을 교양선택 교과로 바꾸고 이수 단위를 2단위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상황 난에 평점 없이 이수 교과목과 이수 여부만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개개 학교에서 종교교과를 운영할 때 복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조치하였다. 이 시기의 종교교육 관련 논의는 이은봉, 김종서, 정진홍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은봉은 호교론적·신학적 종교교육과 객관적 종교연구를 구분하고 종교과학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⁴⁰⁾ 김종서는 이은봉과 유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교과과정의 검토를 위해 초종파적 기구의 설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⁴¹⁾ 그리고 정진홍은 인성형성, 사회적 통합,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교교육은

연구》, 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3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28쪽. 종교학과와 교육학과의 연합으로 진행된 1995년의 2차 연구 과정에서 약 50명이 종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약 120명이 참여한 2000년의 3차 연구 과정에는 특히 종교학 과목이 강화되어 총 40학점의 종교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자격증 연수자들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교직 과목 18학점을 수강해야 했다.

40) 이은봉,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 국제크리스찬교수협의회 편, 《학문과 종교》, 서울: 도서출판 주류, 1987, 38쪽.

41)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44쪽.

종교에 대한' 지식의 교육과 학습임을 지적하였다.⁴²⁾ 이들의 논점은 종단교육과 종교문화교육,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을 구분하면서 종교교육이 종교문화교육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들의 문제의식이 기존의 경우처럼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은 제5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방침을 이어받으면서 종교교육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종교의 수업 단위는 다른 교양 선택 교과들처럼 4단위로 증가하였고, 일선 교사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해설서도 편찬되었다. 특히 교양 선택 교과 전체의 방향과 선택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교육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행해졌던 종교교육에 교육 과정과 교육 지침이 마련되었다.⁴³⁾ 단위(單元) 의식에서 다원(多元)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교를' 가르치는 것에서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진홍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⁴⁴⁾ 이 시기에도 논점은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에 맞추어졌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연계시키면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김종서는 종교에서 제시된 원초적인 도덕 가치들의 메시지 자체가 도덕적 진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⁴⁵⁾ 류성민은 종교교육이 도덕교육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종단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⁴⁶⁾ 또한 교육학 분야에서도 정서적 측면에서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의 연계성을 다룬 논의들이 등장하였다.⁴⁷⁾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성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쟁점이 되었다. 이 부분은 2001년 종교교육학회의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⁸⁾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고진호는 종교학적 종교교육

42) 정진홍, <종교교육의 실태-각급학교 종교교육 실태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73쪽.

43)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24-8쪽.

44) 정진홍, <한국의 종교생활과 교육>, 《교육월보》, 서울: 교육부, 1993, 61쪽.

45) 김종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제14권 6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27쪽.

46) 류성민,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4.

47) A lan Harris,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교육》(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서울: 집문당, 1993, 20쪽.

48) 종교교육학회는 주로 교육학 전공자들이 모여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인 1995년에 창립한 것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종교교육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행한다. 현재 한국종교학회에 종교교육분

과 신앙적 종교교육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편과 특수성의 내적 연관성을 지닌 관계임을 지적하였다.⁴⁹⁾ 손원영은 제7차 종교교육과정을 건전한 인격도야를 목표로 한 교양교육을 위해 종교학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종교교육과정'으로 정리하면서, 종단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⁵⁰⁾ 양은용은 종단학교의 입장에서 학교 운영주체가 개방된 종교교육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⁵¹⁾ 인성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성을 토대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원영은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려면 종교과목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⁵²⁾

무엇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정 종파 교육과 일반 종교교육이 지닌 상호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은 양자를 병행시켰고, 그로 인해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은 모호한 영역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기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종교교육 분야가 근대적 학문 체계 내에서 자기의 영역을 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대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양 선택 과목에 배치된 종교 과목도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라는 공적 테두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사적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개항 이후 전개된 정교분리의 역사, 종교·교육 분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개항 이후 종교 영역은 정치·교육의 영역과 분리되어 사적 영역을 배당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종교는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 발언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도 표면상 근대적

과가 있지만, 종교교육만을 대상으로 발족한 학회는 종교교육학회가 유일하다.

49)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79쪽.

50) 손원영, <제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127-9쪽.

51) 양은용,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170쪽.

52) 손원영, 앞의 글, 134쪽.

학문으로서 공적인 영역에 위치에 있지만 사적인 영역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학문 체계 내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걸쳐있는 종교교육의 이중적 성격은 종교교육 관련 법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교육의 관련 법규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①항과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④항, 그리고 교육법 제6조 ②항이 있다. 교육법 제6조 ②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행해질 수 없으며',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와 입시제도의 평준화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특정 종파 교육이 아닌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교과 내용 항목에는 종단학교의 설립 취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항목이 삽입되었고, 이로 인해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인의 양성과 종교에 대한 건전한 상식인의 양성'이라는 이질성을 안게 되었다.⁵⁴⁾ 사실상 종단학교에 특정 종파 교육이 아니라 일반 종교교육의 실시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종단학교에서 일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면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라는 교육법 제6조 ②항의 당위적 요청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교육부가 일반 종교교육을 지향하면서도 복수과목 개설을 요청한 것은 은연중에 종교교육이 특정 종파 교육임을 전제한 것이고, 공·사의 중첩된 영역에서 종교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교육이 학교교육이라는 장에서 요청된다면, 종교교육은 다른 교육처럼 근대적 학문 체계 내에서 공적인 영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를 공·사의 중첩된 영역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공적 영역의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교교육은 특정 종파 교육과 일반 종교교육의 중첩성에서 벗어나 근대적 학문 체계 내에 배치된 다른 과목들처럼 공적 영역에 배치되어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에서 운용될 수 있는 일반 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 또는 포교와 종교교육을 연계하려는 종단학교들의 설립목표는 건전한 시민 양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종교교육은 종단학교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⁵⁵⁾ 즉 종교교육

53) <종교 과목을 재량 활동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이수시킬 수 있는가?>,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홈페이지(<http://home.cein.or.kr/%7Eedu7th/>).

54)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37쪽.

이 건전한 시민 양성을 지향한다면 일반교양선택 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은 현실적으로 중단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나 교양 과목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종교들이 공존 또는 갈등 현상을 보이는 한, 종교는 한국인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차원을 매개로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성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1974년 《종교윤리학》(Journal of Religious Ethics)의 창간을 매개로 종교윤리학(Religious Ethics or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분야에서 종교와 도덕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는 추세이다. 종교와 도덕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 영역 내에 도덕적 전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다.⁵⁶⁾ 주목할 점은 종교 윤리학의 서구적 편향성(parochialism and Western bias)에 대한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⁵⁷⁾ 이러한 시각이 특정 종교의 입장을 도덕의 차원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일반과 도덕과의 연관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⁵⁸⁾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에 효과가 크다'는 지적은 특정 종교가 학생들의 인성 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호교론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⁵⁹⁾ 한국에 있는 중단학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교 일반이 아니라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의 호교론적 태도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교육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도덕교육과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물음은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의 변별성 문제'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할당받고 있는 한,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은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중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만약 두 영역이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면 굳이 두 영역이 동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두 영역이 이질적인 것이라면 두 영역의 연계성 문제를 논의할 근거를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교와 도덕의 관계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질적인 두 개념 또는 두 영역의 관계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구체적인 종교

55) 위의 글, 39쪽.

56) John P. Reeder Jr., *What is a religious ethic?*, JRE, 25., 1998, p.157.

57) JRE(1998년)에 실린 그린(Ronald M. Green)의 글(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973-1994)과, 메일랜더(Gilbert Meilaender)의 글(Toward a nonimperialistic JRE)을 참조.

58) James M. Gustafson, *A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of American Religious Ethics, 1948-1998*, JRE, 1998, p.3., p.7. Gustafson은 1948-98년까지 미국 종교 윤리학사를 회고하면서 현재 종교 윤리학의 추세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일반을 지향하는 종교 윤리학(religious ethics)임을 언급하고 있다.

59) <중립학교 인성교육 효과 만점>, 《디지털법보》 2002.9.4.

현상으로서의 도덕 혹은 구체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종교적 태도라는 의미에서 양자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⁰⁾ 이 시각은 종교라는 현상에 도덕적 측면이 있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계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만약 두 영역의 교집합을 인정한다면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그 근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때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파 교육이 아니라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교양차원의 종교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종교교육을 인성교육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주장할 때 던져야 할 물음은 일반교양선택 과목과 종교 과목이 일선 학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이다. 즉 다른 일반교양선택 과목들은 모든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는데 종교 과목은 왜 종단학교에서만 채택되는가'라는 물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종교 과목이 종단학교에서만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이 곧 특정 종파 교육이라는 인식, 따라서 종교교육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인성교육과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일반 종교교육에 두고자 한다면, 그리고 종교교육과 인성교육 및 도덕교육과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면, 종교 과목도 다른 일반교양선택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에서도 교양선택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면서

종교교육은 한국의 다원적 종교현상을 고려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교육에 대한 오래된 인식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입식의 세뇌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참여하기를 원치 않아도 해당 종단학교의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필자들이 현직 종교교사와 면담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종단학교는 전교생에게 세례를 주어 특정 종교인으로 생산하려는 목표까지 지니고 있다고 한다.⁶¹⁾ 하지만 종교

60) 류성민, <종교와 도덕의 관계-종교윤리학 방법론의 기초>, 《종교연구》, 제24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1, 139쪽.

61) 면담 장소: 경기도 광주 내 ○○고등학교. 면담 일시: 2003년 4월 22일 1030-1300.

교육을 세뇌교육과 동일시했을 때, 동일한 논리를 역사, 문학, 기타 다른 과목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과목에서 교육이 포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교육방법이 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²⁾ 이는 한국 사회에 다른 수많은 종교인들이 존재하는 한 종교교육이 세뇌교육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종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이 세뇌교육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종교교육이 곧 특정 종파 교육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교육의 성격을 모호하게 규정해온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종교교육과 특정 종파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성격이 일반 종교교육으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즉 현행 종교교육의 성격에서 특정 종파 교육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과 세뇌교육의 동일시와 그로 인한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이다.

교육부가 특정 종파 교육과 일반 종교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은 종단학교의 설립취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평준화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한, 학생들이 왜 종단학교의 특정 설립취지에 부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교육의 성격에 대해 교육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종단학교의 설립취지가 특정 종파 교육이 아니라 일반 종교교육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고려는 학생들에게 종교 선택에 대한 최종 판단권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의 성격을 규정할 때는 종교교육의 영역이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에, 제7차 교육과정의 영역이 근대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속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종교교육은 근대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근대적 학문 체계 내에서,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이 종단교육,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 호교론적·신학적 교육의 성격을 지닐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교육 관련 이슈가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온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종교교육론과 근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논의 전개는 활발하지 않다. 오히려 특정 종파 교육과 일반 종교교육의 관계, 즉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종교교육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62) Alan Harris, 앞의 책, 89쪽.

국 사회에서 종교교육 관련 논의가 종교교육 성격 규정을 포함한 내부적 성찰보다 종단학교들의 세력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종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종교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은 요청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성격이 특정 종파 교육으로 규정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 관련 문제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요인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논의가 근대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위치, 근대적 학문 체계 내에서 종교교육이 지녀야 할 학문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한 종교교육론과 근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문제, 즉 여러 종교에 대한 지식교육과 그에 대한 성찰 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쳤을 때 특정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필자들이 현직 종교교사와 면담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교육과정의 종교교육론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만한 소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예컨대 종교 과목과 다른 과목과 복수 개설 문제, 종교교사들의 연수 문제, 종교교사들의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종교 교과서의 집필 문제 등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쟁점화되어 논의되어야 할 소재들이다. 이 작업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필자들의 추후 과제가 될 것이지만, 이 작업이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현대불교》, 《디지털법보》
- 《국민일보》, 《기독신문》, 《한국성결신문》, 《활천》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양 - 》, 서울: 교육부, 2001.
-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서울: 교육부, 1999.
-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1999.
- 〈중·고등학교 종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교육소식》, 제26호, 2000.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 -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_____,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제14권 6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 류성민,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 - 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4.
- _____, 〈종교와 도덕의 관계 - 종교윤리학 방법론의 기초〉, 《종교연구》, 제24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1.
- 손원영, 〈제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 양은용,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 윤이흠, 〈종교 다원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 이은봉,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 국제크리스찬교수협의회 편, 《학문과 종교》, 서울: 도서출판 주류, 1987.
-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 중, 고교 도덕교육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종교연구》, 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 _____, 〈종교교육의 실태 - 각급학교 종교교육 실태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_____, 〈한국의 종교생활과 교육〉, 《교육월보》, 서울: 교육부, 1993.
-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홍영일, 〈기독교학교교육에서 바라본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 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홈페이지

(<http://www.kfcs.or.kr>)

Alan Harris,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서울: 집문당, 1993.

Gilbert Meilaender, Toward a nonimperialistic JRE, JRE., 25, 1998.

James M. Gustafson, A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of American religious ethics, 1948-1998, JRE., 25, 1998.

John P. Reeder Jr., What is a religious ethic?, JRE., 25, 1998.

Ronald M. Green,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973-1994, JRE., 25, 1998.

원고접수: 11월 12일 1차심사: 11월 21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김철주

- ① 전공: 교육과정, 교육공학 / 소속: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교육과정의 현장적용 및 실천관련, 교육정보화와 교사교육
- ③ 주요논저: 《효율적인 교수방법 탐구》, 《교육공학의 동향과 새로운 교육》,
〈테크놀리지의 활용과 교사교육의 방향〉

④ E-mail: kcjoo@hanafos.com

연구자 소개: 고병철

- ① 전공: 종교학(한국종교) / 소속: 강남대학교 종교철학과 강사
- ② 관심영역: 종교사, 종교이론, 문화비평, 종교교육
- ③ 주요논저: <근대 단군 담론의 이해, 종교연구>, <금강대도 교단의 정체성 확립
과정-의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건강 담론과 약의 구원론
-매일신보 약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④ E-mail: 03250@hanmail.net

The points of issue of religious education based upon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and its' new directions

Kim, Chul-joo / Ko, Byoung-chul
(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various educational issues according to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Throug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we tried to find out points of issue of religious education and examined the new directions of religious education that should be persued in the near future.

While reflecting the curriculum policies on the religious education by the each time period of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reorganizing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wa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reorganizing the issues of current religious education can raise fundamental problems and directions of religious education in progress.

To achieve these purposes, in chapter 2, in the title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we reviewed how religious education was defined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In chapter 3, 'the confrontational elements of religious education', we reviewed what have been caused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for the religious education. Also, we examined the reactions toward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from the mission schools which chosen religious subjects on their school curriculum.

The chapter 4, in the title of 'points of issues of religious education and new direction', we made a reference to previous discussions of the article with the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this writing, we classified two different issues of religious education. The first issue was, the identity of religious education that have two oppositional points of views from the time of 4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The second issue was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between 'religious education' and 'moral education'.

As long as the current curriculum exist within the boundary of modern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we clarified the fact that the debates on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proceed within the scope of consideration of coherence between religious education and modern national curriculum.

Key words: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mission schools, the identity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and moral education, modern national curriculum standard